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대전·충남지회를 꿈꾸며



이종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회장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지냈었는데 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사랑과 봉사를 배울 수 있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사랑과 이해를 통한 직원들의 모습이 협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사랑과 봉사를 배우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5년여 동안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통일과 관련된 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경직, 경쟁, 전략, 권위, 타협하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협회와 인연이 되면서 가정, 가족, 이웃, 민족, 온 인류에게 사랑, 온유, 희생, 봉사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주역이 되겠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최선 다해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충청남도의회 의장, 민주평통 충남지역 부의장, 민주평통자문의원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정치인으로써 책무를 느끼고 실천하면서 지역발전·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2000년 신년 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장의 중책을 맡았다. 정치에 머무르다 의료분야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힘을 쓰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특히, 작년 한해는 대전·충남지회에 뜻 깊은 한해였다. 지회장을 비롯한 안병근 사무



2004년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생식보건 증진사업 및 인구사업 성공 경험에 대한 한·중 교류 협력차 중국을 방문한 이종수 회장.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 전국지회 평가에서 우수지회에 뽑혀 직원들은 '하면 된다' 는 자신감에 차 있다. 올해는 더욱더 노력하여 전국 최우수 지회로 평가 받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직원들의 모습에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울 뿐이다.

주민건강 복지향상을 위한 지회

우리지회는 지난날 가족계획사업의 노하우를 발판삼아 시대적 국가 암 검진사업을 위해 양질의 의료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주민건강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직원 간에 사랑과 이해와 협조 속에서 대전·충남지회의 끝없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이종수 회장은 (주)보성여객 대표이사, 단국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거쳐 2000년도에는 충남도의회 제 4,5,6대 의원에 당선되었고 협회 대전·충남지회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이후에 충남도의회 의장, 민주평통 충남도 지역 부의장과 자문의원 등 대전 충남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대전·충남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의 비전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 등 가정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검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가정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있다.